

## R-16. 치주 골내낭에서 anorganic bovine-derived hydroxyapatite matrix(ABM)/cell binding peptide(P-15)의 임상적 효과

원미숙\*, 이상현, 백정원, 김장성, 조규성, 채종규, 김종관, 최성호  
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, 치주조직재생연구소,  
BK21 의과학 사업단

치주질환으로 인해 상실된 치주조직의 재생을 위해 이용되는 골이식재의 치료효과를 알아 보고자 ABM/P-15을 사용하여 술후 6개월간 치료에 대한 임상적 효과를 34명의 만성치주염으로 진단된 환자의 34개의 골내낭을 대상으로 치은박리수술을 시행한 12개의 골내낭을 대조 1군으로, 탈회냉동건조골을 이식한 11개의 골내낭을 대조 2군으로, ABM/P-15를 이식한 11개의 골내낭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였다. 술전과 술후 6개월 후의 치료효과를 치주낭 탐침깊이, 부착상실, 탐침골 깊이의 변화로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1. 치주낭 탐침깊이의 변화는 대조 1군( $2.0 \pm 0.9\text{mm}$ ), 대조 2군( $3.0 \pm 0.9\text{mm}$ )과 실험군( $3.4 \pm 1.5\text{mm}$ ) 모두 술후 6개월에 유의성있는 감소를 보였다. ( $P < 0.01$ ). 대조 1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유의성있는 더 많은 감소를 보였다( $P < 0.05$ ).
2. 부착상실의 변화는 대조 1군( $0.1 \pm 0.7\text{mm}$ )에서는 유의차가 없었으나, 대조 2군( $2.0 \pm 0.6\text{mm}$ )과 실험군( $2.2 \pm 1.0\text{mm}$ )에서는 술후 6개월에 유의성있는 감소를 보였다( $P < 0.01$ ). 대조 1군에 비해 대조 2군과 실험군에서 유의성있는 더 많은 감소를 보였다( $P < 0.05$ ).
3. 탐침골 깊이의 변화는 대조 1군( $0.1 \pm 0.9\text{mm}$ )에서는 술후 6개월에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, 대조 2군( $2.7 \pm 1.0\text{mm}$ )과 실험군( $3.4 \pm 1.3\text{mm}$ )에서는 술후 6개월에 유의성있는 감소를 보였다 ( $P < 0.01$ ). 대조 1군에 비해 대조 2군과 실험군에서 유의성있는 더 많은 감소를 보였다( $P < 0.05$ ).

이상의 결과로 치주골내낭의 치료시 ABM/P-15를 이식하는 경우 부착상실과 탐침골 깊이가 유의차있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므로 ABM/P-15는 치주조직 재생에 효과적인 골이식재로 생각되어진다.